

〈주요용어〉: 자살, 저항, 경험, 주체성, 민족지, 중국, 농촌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은 과연 저항인가:

서구 저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자살행위에 관한 인류학적 사례분석¹⁾

이현정*

〈국문초록〉

최근 중국은 젊은 농촌 여성들의 빈번한 자살로 인해 역사상 유례없이 여성의 자살률이 남성보다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사회단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이 만들어 낸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논문은 먼저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을 시장개혁 시기 이들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에 대한 저항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anthrolee@gmail.com

1)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005-J02502). 본 논문은 연구자가 박사학위논문(Lee 2009)을 쓰고 난 후 가지게 된 새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본문에서 인용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한 논의 및 주장은 처음 제기되는 것이다. 덧붙여 이 자리를 빌려 논문의 심사를 맡아 주시고 상세한 지적과 도움 말씀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으로 해석하는 두 편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각각 제임스 스콧과 미셸 푸코의 저항 개념에 기대고 있는 이 논문들은 중국의 농촌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온 구조적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 행위가 가질 수 있는 저항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여성 개개인이 자살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선택하기까지 경험하는 다양한 개인적 삶의 맥락 및 과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저항 개념에 의존함으로써, 다수의 중국인들이 자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저항의 의미를 구별해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국 사회의 규범과 믿음 체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한편, 연구자가 북중국 농촌 마을에서 수집한 여성의 자살 행위에 관한 민족지적 자료들은 저항적 성격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논의와는 사뭇 대비되는 사실들을 드러낸다. 자료에 근거해 볼 때, 농촌 여성들의 자살 행위는 분명히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인 고통의 맥락을 보여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자살 행위가 반드시 저항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자살 행위는 자살을 시도하게 되기까지 각각의 여성들이 겪어 온 특수한 삶의 과정과 맥락,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해 온 다양한 감정적 경험들을 드러내 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중국 농촌의 여성 자살을 저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일 수 있으며, 자살 행위에 관한 민족지적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1. 문제 제기

1990년대 중반 중국의 자살률이 처음으로 외부로 공개된 이후,²⁾ 세계

2) 1990년대 이전까지, 중국의 자살률은 정부의 명령 아래 각 지방의 현 단위로 수집되고 있었지만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냉전 체제의 분위기 속에서 자살 통계가 중국 국가를 비판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이용될 것을 중국 정부가 염려하였기 때문이다(Ji, Kleinman and Becker 2002 참조).

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보건의료집단, 학자, 매스컴 및 비정부 사회 단체들은 중국의 자살 문제에 급속도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이현정 2010; WHO 1999; New York Times 1999; BBC 2007; Pritchard 1996; He and Lester 1997; Phillips, Liu, and Zhang 1999; Lee and Kleinman 2000; Qin and Mortensen 2001; Liu 2002; Phillips, Li, and Zhang 2002; Pearson and Liu 2004; Wu 2005; Yip, Liu, Hu, and Song 2005; Wesoky 2005; Lee 2009). 중국의 자살 현상은 정치적·학문적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인민의 국가'라고 자부하던 사회주의 중국의 자살률이 매일 약 800명의 자살 사망자를 의미하는, 세계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Murray and Lopez 1996),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자살률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Phillips, Li, and Zhang 2002).³⁾

특히, 예외적으로 높은 여성 자살률이 무엇보다 40세 미만 젊은 농촌 여성의 빈번한 자살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자살현상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국 내 차별적인 도농관계 및 성별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중국의 높은 여성 자살률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과학적 시각은 최근 중국 농촌 사회에 대한 연구자료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부터 진행된 중국 정부의 시장 체제 도입은 도농 지역 간 및 농촌 공동체 내에서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한 농민 가구의 경우 이전보다 더 극심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에 시달려 왔다(전성홍 1997; 양영균 2001). 또한, 시장개혁 이후 농촌지역에서 고용, 의료, 교육 등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제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 활동뿐 아니라 노인 환자 부양 및 자녀양육의 책임이 새로운 성역할로서

3) 뒤르켐(Durkheim 1951[1897])의 『자살론』 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는 사실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 자살 연구자들에게는 일종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촌 여성들에게 부과되어 왔으며 이들의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모택동의 사회주의 체제가 수십 년 간 추구해 온 남녀평등을 향한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 공동체 내에 지속되어 온 남아선호사상 및 연령과 성 위계에 기초한 가부장적 가족 구조는 남편의 마음으로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농촌 여성들에게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제공해 왔다(울프 1991; 장경섭 1995; 조수성 1997; 김광익 2000; 한지아령 2002; 신은영 2003; 최지영 2006; Jacka 1997; Shin 2001).

그러나 현대 중국 사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정치 경제적 상황 및 사회 문화적 구조들은 왜 중국 사회에서 농촌지역의 여성이 특별히 자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맥락을 보여 줄 수 있을지언정, 여전히 왜 이들 개개인이 그토록 많이 자살을 선택하는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개혁개방 시기 중국 농촌의 여성들이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한 여성들이 다른 여성 및 남성들에 비해 반드시 객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는 자살행위가 사회적 조건 및 객관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긴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 및 심리적 동기에 의해 선택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농촌 여성의 빈번한 자살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들 집단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정치 경제적 조건 내지 사회 문화적 환경뿐 아니라, 농촌 여성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내지 문화적 동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점들을 고려할 때, 중국 자살에 관한 최근 사회과학적 논의 중에서 중국 사회가 자살에 관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농촌 여성의 자살을 '저항(resistance)'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개 서구의 정치학과 인류학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온 이 관점은 이론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 논의에 주요한 기여를 해 온 제임스 스콧(Scott 1989) 혹은 미셸 푸코(Foucault

1978)의 저항 이론에 기대고 있다. 이 관점은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자살에 관한 독특한 문화적 의미가 농촌 여성 개인이 자살행위를 선택하도록 동기 부여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중국의 농촌 여성 집단이 처한 열악한 환경 및 억압적 상황들을 부각시키는 여타 논의와는 구별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저항' 관점의 저지들은 서구 사회와는 달리 중국에서 자살이 역사적으로 저항의 의미를 띠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서구 사회에서 자살행위가 정신적 질병이나 개인적 절망의 표현으로 간주되어 온 반면, 중국 사회에서 자살은 그보다는 '저항'의 정치적 의미를 띠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농촌 여성의 자살은 현재 이들이 처해 있는 다면적인 억압적 상황에 대한 일종의 저항행위로서 간주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이 갖는 '저항'의 의미를 강조하는 논의들이 여타 환경적 요인만을 나열하는 연구들에 비해 더 나은 분석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를 적절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가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들 연구들이 기대고 있는 서구적 '저항' 개념이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을 분석하는 데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중국 사회에서 자살이 맥락에 따라 저항의 의미를 띠어온 것은 사실이다(Lin 1990). 따라서 서구식 '저항' 논의를 적용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 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상 서구적 '저항' 개념은 중국인이 이해해 온 인간관 내지 도덕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적·윤리적 배경 위에서 있다는 점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인식론적 내지 존재론적 기반을 무시한 채 형태상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다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중국인의 자살행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김광익 1991).

둘째, 중국 사회에서 자살이 '저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

지만, 이들 연구들은 실제로 중국 내에서 자살에 대한 해석이 어떤 한 가지로 고정되어 나타나기보다는 해석의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들이 공존하고 경합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여 년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현상에 관해, 중국 사회 내에는 여성 억압적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존재하는 반면, 농촌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신보건의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으며, 또한 개개인 여성의 '부덕한 자질'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해서, 어떤 한 가지 관점을 학문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현지조사 자료로부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적어도 실제 자살을 시도한 농촌 여성들이 내는 목소리에 근거해 볼 때, '저항'은 적어도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주된 심리적 동기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저항'에 대한 강조는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살에 관한 문화적 의미의 독특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나머지, 중국인의 삶 속에서 자살행위가 선택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들을 단순화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농촌 여성들이 직접 토로하는 서로 다른 주관적 경험들과 구체적인 감정의 지점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을 '저항'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피지배 집단의 행위성(agency)을 중시해 온 최근 사회과학의 이론적 경향 및 중국 여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에 부적절하게 편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1980년대 이후 인류학과 여성학을 비롯한 서구 사회과학에서는 피지배 집단의 성원들을 단순히 구조의 '희생자(victims)'로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이들 역시 상황 개선 및 개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하는 '행위자(agents)'임을 강조해 왔다(Ortner 2006; Wardlow 2006). 특히,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마르크시즘과 같은 거대한 체제 비판 담론이 힘을 잃어감에 따라, 학자들은 비록 체제의 변혁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적 수준에서 피지배 집단 성원들이 드러내는 다양한 저항적 행위들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대표적으로, Scott 1989).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듯이(Abu-Lughod 1990; Ortner 1995; Brown 1996; Hollander and Einwohner 2004; Sivaramakrishnan 2005), '저항'에 대한 무차별적 적용은 오히려 저항 개념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 정신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성원들이 취하는 다양한 '행위성' 자체에 대한 논의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자는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를 '저항'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피지배집단의 저항성을 발견·복원하고자 하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 속에서, 비서구 사회 중국의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인 농촌 여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선입관으로 인해 오히려 이들의 행위성의 문제를 '저항성'으로 단순화시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aid 1979).

지금까지 제기한 비판적 지점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연구자는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을 '저항'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들 중 두 개의—연구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논문을 대상으로, 과연 이들의 주장이 실제 중국 농촌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을 올바르게 보여 주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각각의 논문이 제임스 스콧과 미셸 푸코의 저항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두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이들의 논의가 자살에 관한 '중국적' 특질을 강조하고자 하는 반면, 각각의 농촌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과정과 맥락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를 '저항'이라고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이 기대고 있는 서구적 개념이 중국인이 자살행위를 선택하는 문화적 가치의 맥락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현지조사로부터 얻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본인의 자살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해석 내지 설명을 시도하는지 이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농촌 여성들이 자살행위를 선택하는 다양한 개별적 맥락 및 감정의 측면들을 보여 주고자 하는 논문의 의도에 맞추어 선별된 만큼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이들의 자살행위가 때론 '저항의 방식' 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 이자 그러한 고통을 멈추기 위한 '해결방식' 으로 선택되어 왔다는 점을 드러낸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개월 간 중국 허북성(河北省) 네 개의 마을 및 자살예방프로그램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의 대부분은 1년 2개월 동안 거주했던 전강촌(前江村, 가명)에서 이루어졌다. 전강촌은 허북성 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당시 농민 1인당 연간 평균 순수입이 2000위안(2006년 기준, 한화 약 25만원)에 못 미치는 가장 빈곤한 몇 개 현(縣, 촌의 상급 행정 단위) 중 하나에 속해 있다(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 2007). 전강촌의 인구는 약 2800명이며, 총 600여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토지 경작권을 부여받은 농민이지만, 농작물 경작만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자 가족 중 한 사람이 마을 근처에 위치한 탄광이나 가까운 도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부부가 함께 옷이나 두부, 잡화 등과 같은 물건을 가까운 오일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수입을 늘린다. 한편,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북경에 본부를 둔 한 비정부조직이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것으로, 북경 및 허북성 현 내에서 사흘에서 열흘에 걸친 상담 및 교육 과정을 진행하거나 마을 단위로 활동을 조직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참여관찰,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 구술 생활사,⁴⁾ 텍스트 분석 등 총 다섯 가지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4) '구술사' 내지 '구술 생애사' 라는 표현이 인류학에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구술 생활사' 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는 녹취의 내용이 구술자의 전체 생애를 다 포괄하기보다는 자살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중 포커스 그룹은 성별 · 연령별로 구분하여 총 여섯 개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살 및 성별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지역적 개념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주된 자료는 마을 사람 남녀 각각 25명, 37명⁵⁾ 으로부터 얻은 심층면접자료와 전강촌 및 다른 조사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 자살 시도자 12명에 대한 구술 생활사자료를 통해 얻었다. 또한 마을 내 주민들과의 공식 · 비공식 면접을 통해 총 33건의 자살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접 및 구술 생활사 녹취는 연구자가 하숙하고 있던 마을 주민의 집이나 피면접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접은 연구 목적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사전 동의를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었다.

2.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은 과연 저항적 행위인가

중국인들의 정신질환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에 있어 권위 있는 학자 겸 정신과의사인 아서 클라인만(Arthur Kleinman)과 그의 홍콩인 제자 싱 리(Sing Lee)가 함께 쓴 논문 "중국 사회에서 저항으로서의 자살"(Lee and Kleinman 2000)⁶⁾ 은 최근 나타나는 중국 농촌 여성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5) 원래 심층면접은 남녀 각각 25명으로 계획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의 여성 주민들이 하나 둘 자발적으로 연구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여성 면접자의 수가 늘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찾아온 여성들은 오히려 연구자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민이나 답답함을 소문이나 곡해의 우려 없이 편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연구자와의 면접을 일종의 심리 상담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 6) 이 논문은 미국 중국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Elizabeth Perry가 편집한 책 *Chinese Society: Change, Conflict and Resistance*(2000)에 수록되었으며, 이후 많은 중국학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농촌 여성이 자살한다는 사실은 현대 중국 농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회적 요소들의 종합적인 작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회적 요소들 중에는 장기간에 걸친 가부장제의 영향, 최근 경제 개혁으로 인해 농촌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들, 국가가 강요하는 출산통제정책, 아들 선호사상 그리고 치명적인 자살 수단인 농약의 접근 용이성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자살을 (제임스 스콧이 사용하는 의미에서) 정치적·사회적 지배의 상황 속에서 무력하게 느끼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저항의 전략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Lee and Kleinman 2000: 221).⁷⁾

국가 사회주의 속에 정당화되고 농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 준 제도화된 차별의 기제에 대해 중국 농민들은 새로운 선택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농민의 행위방식을 통해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들은 지지할 수 없는 국가의 장벽들을 교묘하게 회피함으로써 도리어 국가가...농민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고 농민이 경제 개혁의 이익을 취하는 매우 근대적인 방식일 수 있다(Solinger 1997)⁸⁾... 이러한 권력 강화를 위한 내생적인(endogenous) 농민의 행위들은 단순히 방어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단위 체제 및 사회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국 사회의 권력 구조 자체를 새롭게

7) 본문의 인용문들은 모두 연구자의 번역이며, 따라서 오역의 책임은 순전히 연구자에게 있다.

8) 리와 클라인만의 인용문 속에 포함된 참고 문헌들의 서지 사항은 기록된 바에 따르면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Solinger, D., 1997, "The Impact of the Floating Population on the Danwei: Shifts in the Pattern of Labor Mobility Control and Entitlement Provision," in X. B. Lü and E. Perry (eds.), *Danwei: The Changing Chinese Workplace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M. E. Sharpe: New York), pp.195-222.

He, Q. L., 1998, *Pitfalls of Modernization: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in Contemporary China* (China Today Press, Beijing) (in Chinese).

Da, D., 1993, "A Preliminary Inquiry into Suicide in China," in J. Peng (ed.), *Social Observation in a Special Zone* (Haitian Publishing House: Shenzhen), pp.492-510 (in Chinese).

He, Z. X., 1996, *Suicide and Life* (Guangzhou Publishing House: Guangzhou) (in Chinese).

Counts, D. A., 1980, "Fighting Back is Not the Way: Suicide and the Women of Kaliai," *American Ethnologist* 7, 332-51.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은 농촌 사람들이 도농 간 불평등에 대해 저항하고, 비판하며,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화된 행위 과정 중의 하나로 서 간주될 수 있다(He 1998). 많이 교육받고, 숙련된, 그리고 *썬시땅* 속에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로 선택하는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비해 다른 저항의 전략을 선택하는 듯하다. 참으로, 중국에서의 최근 연구들은 자살이 "글을 모르고"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에게서 보다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Da 1993; He 1996). 비록 정신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들 여성들이 '질병의 위험' 속에 있다고 딱지를 붙이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및 사회적 관계)의 결핍은 일종의 사회적 주변화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살은 설령 비애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인(rational) 저항의 수단이며 힘없는 사람들의 권력의 표현일 수 있다(Counts 1980; Lee and Kleinman 2002: 234-235, 이탤릭체는 원저자의 강조).

단지 몇 문단의 인용을 통해 논문 전체의 내용을 어떠한 오해도 없이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리와 클라인만이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즉, 두 인류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농촌 여성의 자살은 농민 저항의 전통적인 방식 — 혹은, 스콧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상적인 형태로서의 저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 — 의 한 종류이며, 따라서 현재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른 농민 저항의 형태들과 더불어 개혁 시기 국가 정책의 변화 속에서 힘이 없는 농민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전략이다.

리와 클라인만은 농촌 여성의 자살이 저항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제임스 스콧이 사용하는 의미에서"⁹⁾의 저항 개념을 이론적인 근거로서

9) 언젠가부터 '제임스 스콧이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저항 개념'이라는 문구는 스콧이 논의했던 바를 넘어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채 그저 두루뭉술하게 자신이 속한 사회에 반대하는 개인적 내지 집단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 및 저항 개념의 범주화 시도에 대해서는 Hollander and Einwohner (2004) 참조.

빌려온다. 그러나 이 문구를 제외하고는 부가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콧의 논문을 통해 과연 그의 저항 개념이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스콧이 논문 “일상적 형태의 저항”(Scott 1989)에서 전형적인 형태로서의 정치적 갈등과 일상적 형태의 계급 저항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저항의] 두 가지 형태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한 가지는 내가 정의한바 “일상적”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보다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대립이다. 한편에는 농민 무단 점유자나 밀렵꾼들이 종종 농장이나 국가 삼림지를 침해하는 조용하고도 단편적인 과정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공공연하게 재산관계에 도전하는 재산에 대한 공공의 침입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재산에 관한 통제와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전략적이며 실제적인 수확을, 후자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즉 이러한 수확에 관한 공식적인 승인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에는 셀 수 없이 속출하는 군대 탈영의 과정이, 다른 한편에는 관료들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개적인 군인들의 반란이 있다. 한편에는 공공 혹은 개인의 곡식 창고에서 줌도독질하는 일이, 다른 한편에는 식량 공급의 재분배를 목표로 시장이나 곡물 저장고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대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일상적 형태의 저항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주의가 쏠리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기술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종종 중요한 물질적 획득을 보장하며, 공식적 조직은 말할 것도 없이 공식적 연합(coordination)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형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항에 관한 공경할 만한(venerable) 대중문화에 의존하고 있다(Scott 1989: 34-35, 이탤릭체는 원저자의 강조).

인용문은 적어도 자살이 저항의 한 형태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다. 즉, 조직된 집단에 의한 공개적인 대립행위를 넘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대처전략들이 저항 개념에 포함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인적 결단에 기초한 개별행위일 수밖에 없는 자살도 저항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스콧은 이와 같은 일상적 행

위들이 각각 그 자체로는 개인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지만, 피억압 집단 속에서 보편적인 ‘저항의 패턴’으로 나타날 때, 심지어 ‘계급’ 저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cott 1989: 36).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리와 클라인만이 주장하듯이—중국 전역에 나타나는 최근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들은 중국 국가에 대한 여성 농민의 개별적 저항이자 계급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리와 클라인만은 형태적 유사성에 치중한 나머지, 농민의 일상적 저항과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적어도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먼저, 농민이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의 방식 대신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저항을 선택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콧은 이를 ‘전략적 지혜(tactical wisdom)’로 설명한다(Scott ibid.: 35). 즉,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대립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 내에서 지나친 위협과 희생을 요구하거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 일상적 형태가 피지배계급에게 더 효과적인 저항전략으로서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자신에게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행위의 특징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농촌 여성의 자살은 어떠한가? 연구자의 면접자료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잦은 가정폭력과 남아선호사상 등을 통해 여성의 신체 및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 익숙한 농촌 여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식을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공동체의 거센 비난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농촌 여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며 강력한 사회적 반발에 맞설 각오를 해야 하는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행동이다. 더군다나 농촌 공동체 내에서 젊은 여성의 자살행위가 공동체 내에 회자되지 않고 남몰래 조용히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농촌 여성의 자살은 오히려 경우에 따라 공개적이고 직접적

인 저항의 수단으로 선택될 수는 있을지언정, 스콧이 말하는 의미에서 일상적 저항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콧은 농민들의 일상적 저항이 '재산 통제의 재분배,'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수확'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배집단이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일상적 저항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는 어떠한가? 자살행위를 통해 여성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이익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익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한정시키는 대신 상징적인 영역까지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든 영역에서, 농촌 여성의 자살은 경우에 따라서 이익 취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컨대 만일 죄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자살로 사망했다면, 그 집안은 도덕적인 불명예뿐 아니라 화려한 장례식 비용과 같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죽은 며느리와 친정 가족은 '억울한 피해자'로서 도덕적인 우세와 물질적 보상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여성의 자살이 결과적으로 재산의 재분배 혹은 새로운 자원의 획득을 바라보고 행해진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최근 중국 농촌에서 발생하는 여성 자살 중에서 위의 사례처럼 일방적인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드물며, 따라서 자살자의 도덕적인 불명예 여부도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기보다는 물질적 보상을 둘러싼 집안 간의 논쟁거리가 된다. 이러한 경향과 맞물려,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여성의 자살행위에 대해 언제나 물질적·도덕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죽은 여성의 친정 가족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살의 원인에 대해 죽은 여성의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항의하지 않거나, 죽은 여성에게 어떤 '도덕적 오점'(예컨대, 혼외관계나 장기간의 질병)이 있었을 경우, 죽은 여성 및 그녀의 친정 가족에게는 물질적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상징적인 보상도 이루

어지지 않는다. 또한 사망으로 끝나지 않은 여성의 자살 시도는 이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떠한가에, 단순히 사회적 비난과 경멸의 대상일 뿐이며 어떠한 사회적 보상 내지 위로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일찍이 마저리 울프(Wolf 197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살 시도는 하기 전보다 오히려 하고 난 후에 더 끔찍한 삶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다.

리와 클라인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푸코의 이론을 바탕으로 농촌 여성의 자살을 저항적 행위라고 바라보는 학자가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며 여성학자인 샤론 웨소키(Sharon Wesoky)는 1990년대 중반 중국 전역의 농촌 여성들이 한 잡지에 써 보낸 편지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이 '저항'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녀의 논문 "시대를 초월한 목소리들: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에 관한 담론 속의 두 가지 저항"(Wesoky 2005)의 도입부이다.

학자들은 푸코가 저항을 권력의 개념에 내재한 것으로 바라본 반면, 저항의 형태나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정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푸코의 개념 속에는 자살을 저항으로 간주할 만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푸코는 저항을 '대안적(alternative)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Faith 1994: 53).¹⁰⁾ 이로부터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자살이 '대안적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푸코는 저항을 주체들의 행위의 근원으로서 이론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을 저항의 가능한 장소로 바라보았다(Simons 1995: 82, 84). 이러한 의미에서, 자살행위는

10) 본 인용문에서 언급된 참고 문헌은 저자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Faith, Karlene, 1994, "Resistance: Lessons from Foucault and Feminism," In *Power/Gender: Social Relations in Theory and Practice*, edited by H. Lorraine Radtke and Henderikus J. Stam. London: Sage.

Simons, Jon, 1995, *Foucault and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사회 정치적 표현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주체성을 갖도록 하는 잠재적인 힘으로서 탐구될 수 있다(Wesoky 2005: 3).

웨소키에 따르면,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거부의 몸짓이자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 국가의 헤게모니적 진실에 반한 대안적 진실을 드러내는 저항이다. 웨소키는 농촌 여성의 자살을 저항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이들 여성이 단순히 억압적 사회 구조 속의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몸을 통해 개인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중국 사회의 권력관계를 재편하는 데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임을 강조한다.

리와 클라인만과 마찬가지로, 웨소키 역시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를 개혁 시기 중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과 연관시킨다. 그녀는 많은 자살행위들이 중국의 경제개혁이 농촌 사회에 생성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괴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1)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혼인 관행과 사랑에 바탕을 둔 결혼이라는 이상 사이의 괴리 그리고 (2) 도농 간의 경제적·문화적 차이. 웨소키에 따르면, 농촌 여성들은 이러한 괴리에 직면할 때 이혼이나 도시 이민과 같은 다른 저항의 방법을 고려하다가 결국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농촌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유는 오랜 공산당의 남녀평등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미 이들이 변화된 여성 주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농촌 여성의 자살은 세상과의 괴리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대안적 진실'에 관한 진술이고, 변화된 여성 주체성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대항 권력을 만들어 내는 저항적 행위이다.

농촌 여성의 자살을 이들이 선택하는 '해결책'을 넘어 '저항'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이미 현재 중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성별적인 특성(gendered

nature)을 띠는 점이다. ...많은 농촌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갖는 실망은 부분적으로는 두 세대에 걸쳐 주장된 중국 공산당의 '남녀평등' 수사법으로 인한 이들의 상향된 기대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자살 사례들은 여성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성별 의식을 드러내 준다. ...또한 사례들은 농촌 여성들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확증한다는 증거를 보여 준다. ...16살 된 딸을 남겨 두고 자살한 휘민 엄마는 남편이 바람이 나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모든 힘을 집안일에 쏟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멸감과 감정적 상처를 견딜 수 없으며 자살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인간 존엄성'의 개념 및 오랫동안 중국 가족 내 아내의 의무로 간주되던 것들에 저항하는 모습은 남녀평등에 관한 중국 공산당의 주장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자기 개념이 변화되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기 개념이 농촌 존재의 현실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Wesoky 2005: 19).

연구자는 웨소키의 논의에 대해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인용 단락의 첫 문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어쩔 수 없이 제기된다. 왜 웨소키는 자살에 대해 '해결책'이 아닌 '저항'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일까? '저항'으로 해석할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는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 혹은 그녀들의 고통어린 삶에 대해 보다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들의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더 효과적인가? 웨소키는 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녀가 논하는 사례가 저항으로 해석되기에 적합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웨소키는 남편의 혼외관계 및 무책임한 태도에 직면하여 자살한 휘민 엄마의 행위가 '오랫동안 중국 가족 내 아내의 의무로 간주된 것들에 대한 저항'이며 변화된 여성 주체성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웨소키는 자살한 휘민 엄마가 남편의 혼외관계를 묵묵히 참고 지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항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든지 '거부의 몸짓' 내지 '포기의 태도'를 보인다면 모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연구자는 웨소키의 분석이 현재 중국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구체적 과정

에 대한 부족한 이해¹¹⁾로 인해 성급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연구자의 조사지였던 마을에서도 휘민 엄마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96년 그녀가 자살할 당시 마흔 두 살이었던 진화(가명)는 약 이십 년 전에 남편과 결혼한 이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으며, 집에는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다. 진화의 결혼생활은 매우 불행했다. 이웃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타고난 바람둥이’(天生花花公子)로 결혼한 지 채 몇 년이 지나기도 전에 근처 마을에 사는 여러 여자와 ‘혼외연애’(婚外戀)를 즐기기 시작했다. 진화가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싸우거나 사정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남편은 진화를 걸핏하면 욕하고 때리고 짓밟기 일쑤여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얼마 후부터 진화의 남편은 이웃 마을의 한 여자의 집에 살면서 집에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기간 동안, 집안일, 밭일, 자녀양육 및 시어머니 돌보는 일을 모두 도맡아 해야 했던 진화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조금만 더 참아라. 남자란 원래 다 그렇다”는 말을 믿고 참고 기다렸으나 점차 심신이 지쳐 갔다. 무엇보다 남편이 전혀 수입을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고 병들었고, 자녀들은 아직 너무 어렸다. 더욱이 농촌에서 밭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네 가족 입에 풀칠을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돈을 빌리려고 해도 남편이 “없어” 여자에게 돈을 빌려 주려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진화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간수를 마시고 사망했다.¹²⁾

11) 이러한 한계점은 어쩌면 웨소키가 잡지에 실린 편지글을 분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2) 진화가 사망한 이후, 시어머니도 충격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사망했다. 진화의 남편은 남은 두 자식을 돌보아 줄 새 부인을 얻었으나, 새 부인은 곧 남편의 바람기를 발견하고는 집을 나갔다. 2006년 당시, 진화의 남편은 세 번째 부인과 살고 있었다.

앞서 웨소키가 든 휘민 엄마의 사례가 진화의 경우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웨소키의 논문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휘민 엄마의 “모든 힘을 집안일에 쏟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멸감과 감정적 상처를 견딜 수 없다며 자살했다”는 표현은 중국 농촌 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변화된 여성 주체성이나 대항 권력을 만들어 내는 저항의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가혹하고 모진 상황을 그래도 견디고 참아온 여성이 느끼는 깊은 절망의 나락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편의 혼외관계에 대응하는 부인들의 일차적 반응이다. 휘민 엄마는 남편이 “바람난” 줄 알았음에도, 빨리 헤어지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힘을 집안일에 쏟는” 등 가정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진화의 경우에도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는 동안에 심지어 아들인 남편도 관여하지 않는 시어머니까지 돌보며 가정을 지킨다. 이들이 이처럼 분노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아내와 엄마, 심지어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도리에 충실하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범적이고 희생적인 자세만이 “잘못된 길을 가는” 남편을 결국 “감동·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궁극적으로 가정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 간의 역할 분담과 희생, 그리고 감화를 통한 타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유교적 인(仁) 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서 중국인에게 일상적 규범과 가치로서 자리 잡아 왔다(孫隆基 1997). 농촌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인간관계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원칙상 남녀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는 여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과 인내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성차별적

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족 및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생물학적 부모가 없는 아이가 경험하게 될 사회적 편견과 고통은 자식이 있는 여성들에게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가정을 버리고 이혼이나 도망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나쁜 여자'(壞女人)로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사회적 관계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농촌 여성들은 차라리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정적 상처와 육체적 피로를 감내하는 지난한 인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종 이러한 인내의 길이 노력과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결심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열악한 농업생산성과 농업노동이 갖고 있는 남녀 성역할 분담의 필요성으로 인해, 여성 혼자서 가정 및 생계를 꾸리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장애에 부딪치며,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이 질병이라고 걸리게 되면 금세 빚더미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 여성들조차도 자신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기는 매우 힘들며,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친 여성들은 종종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휘민 어머니나 진화와 같은 여성의 자살행위가 '저항'의 의지 혹은 남녀평등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 변화된 여성 주체성의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일까? 연구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재 농촌 사회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성차별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에 대한 '저항' 의지가 있고 변화된 여성 주체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남편의 혼외관계에 직면했을 때 참고 견디다가 지쳐서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일찍이 이혼이나 도망, 혹은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¹³⁾ 오히려, 남편의 불륜에 맞닥뜨려

13) 물론 자살을 선택한 여성들 중에는 이미 이혼과 같은 다른 해결방법을 시도해 본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이혼을 어렵지 않도록 배려한 법률 조항과는 달리, 실제 농촌 여성의 이혼 시도는 남편의 반대, 시가족의 방해, 여성 자신

인내하다가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과 이데올로기를 온전히 수용한 여성 주체성을 가진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지만, 농촌 여성의 자살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선택될 수 있고, 언제나 진화와 같은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례들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둘째, 웨소키가 기대고 있는 푸코의 저항 이론은 사실상 중국 사회에서 이해되어 온 '저항으로서의 자살'과는 전혀 다른 권력과 저항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자살의 저항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혼돈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앞서 소개한 처음 인용문에서, 웨소키는 푸코의 논의를 빌려 저항이란 '대안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녀는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는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헤게모니적 진실과는 다른 대안적 진실을 드러내는 저항적 행위이자 대항 권력을 생성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푸코의 저항 이론은 그의 권력 이론과 동전의 양면 관계로서, 권력에 대한 논의 없이 저항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성의 역사』 제1권에 언급된 저항에 대한 그의 논의를 잠시 살펴보자.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그러나 혹은 그로 인해 저항은 결코 권력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 권력관계는 다양한 저항의 지점들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저항의 지점들은 권력관계 내에서 적수, 공격의 표적, 지지, 또

의 법률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마을 간부나 법원 관리의 "아이를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도덕적 훈계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 내에서 이혼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며, 특히 여성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농촌 사회에서 재혼은 사회적으로 선호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처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저항의 지점들은 권력망의 모든 곳에 편재해 있다. 따라서 어떤 위대한 거부, 또는 모든 반란의 근원이거나 혁명의 순수한 법칙이 되는 저항 정신과 같은 것도 없다. 그 대신 각각의 경우가 특수한 복수의 저항들이 존재한다(Foucault 1978: 95-96).

푸코에게 권력이 특정 집단이 갖는 권위나 억압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에게 저항 또한 변화를 의도한 조직적 행위나 혁명적 정신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이 생성하는 힘으로서 누구로부터든지 또는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듯이, 저항 또한 그러한 권력망의 곳곳에 편재해 있다. 따라서 푸코의 이론 속에서 저항은 권력의 대립 항으로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상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과 공존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권력과 저항은 언제나 서로 함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푸코의 말에 따르면, 저항은 적수나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권력관계를 지지하거나 처리하기도 한다.

결국, 푸코와 웨소키의 관점으로부터 바라보자면,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은 비록 현 시점에서는 중국 사회에 대한 헤게모니적 담론 — 예컨대 중국 정부와 기업이 선전해 온 개혁 중국의 황금빛 미래와 발전에 대한 비전 — 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적’ 진실이고 저항의 지점에서 있을 따름이지만, 그 자체로 전체 중국 사회에 편재하는 권력관계에 속한 숱한 생성하는 힘들 중 하나로서 또 다른 권력 행사이기도 하다.

웨소키의 푸코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자체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저항적 행위로서 자살’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저항’의 의미가 푸코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살 논의에서 푸코의 저항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 내의 다양한 자살의 형태와 맥락에 대한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래 현재까지 자주 신문 기사화되는 중국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분신자살’(自焚)이나 한때 중국 정부의 종교적 억압 정책을 반대하는 법륜

공(法輪功)들의 자살행위와 같은 경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중국인들에게 ‘저항으로서의 자살’이란 권력이 부재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나 관리)의 비윤리적이고 억압적인 태도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며 행하는 ‘강력한 도덕적 비난 내지 호소’를 뜻한다. 따라서 저항으로서 자살이 이야기될 때 권력과 저항의 주체는 결코 혼재될 수가 없으며, 대개 저항의 해소는 권력자가 기존의 방침을 무효화하거나 저항 주체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항 수단으로서의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추구할지언정 근본적으로 기존의 권력관계를 무시하거나 뒤바꾸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저항으로서의 자살은 기존의 권력관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도덕적 명분에 기대어 반대를 표명하는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는 저항으로서의 자살이 될 수 없는가? 물론 될 수 있다. 예컨대 농촌 사회에서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은 — 특히 친정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면 — 남편과 시가족의 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는 조사 지역에서 가정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적지 않은 숫자의 여성들을 만났다. 이 여성들 중에는 남편과 시가족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살 시도는 종종 남편 및 시가족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 소개되는 단단의 사례가 그중 하나이다. 또한, 웨소키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가 딸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딸이 선택하는 자살행위 또한 저항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운 좋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딸의 자살행위는 부모의 결정을 유보시키고 대신 본인이 원하는 상대와 결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되곤 한다. 이처럼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도 도시에서 나타나

는 남성 농민이나 노동자의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로 맥락에 따라서는 저항의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 농촌 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맥락은 이처럼 억압적 상황에 대한 권력의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경제적 곤란이나 실직, 장기간의 질병 치료, 이웃에 대한 시기심 등 보다 포괄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여성들이 비슷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자살 시도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주변 상황이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저 자신의 몸만 상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멸시만 받을 뿐이다.

3.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와 연관된 다양한 삶의 과정과 감정적 경험

인도 출신 문학 비평가인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은 그녀의 논문 “하위 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Spivak 1988)에서 인도의 과부 순장(殉葬) 관습인 사티(sati)가 영국 식민주의자, 페미니스트 그리고 인도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각기 다르게 해석되었지만, 이들 모두 순장을 앞둔 여성 혹은 인도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단지 그들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목소리만을 대변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영국 식민주의자와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순장을 여성 자살을 강요하는 야만적 관습이며 가부장적 폭력으로 간주하면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보았다. 반면, 인도 민족주의자들은 순장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된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식민주의자 및 페미니스트들의 순장 폐지 요구를 민족의 고귀한 문화를 말살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폭력으로 간주했다. 스피박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인의 담론 속에서 사실상 어디에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없고 침묵하게 되는 인도 여성들이다. 결국

하위 주체를 대표(representation)하는 지식인들은 실제로 하위 주체를 재현(representation)하지 못해 왔다고 그녀는 결론짓는다.

식민시기 인도 여성의 순장 관습에 대한 지식인의 담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에 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물론 식민시기 인도와 개혁 시기의 중국은 결코 동일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를 ‘저항’이라고 해석하는 리와 클라인만 그리고 웨소키의 관점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피억압집단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주장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자살 선택에 직면한 중국 농촌 여성들이 갖는 다양한 삶의 맥락, 경험, 의미들은 사실상 간과되고 있다. 저항 담론 속에서 중국 농촌 여성이란 중국 국가에 대치하는 계급집단의 정체성으로서만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저항을 강조하는 서구의 지식 담론 속에서 계급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농촌 여성들의 다양한 주체성의 경험들은 비가시화된다.

저항으로 일반화하는 대신에, 본 장에서는 자살을 선택하는 농촌 여성들이 각자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경로와 주체성을 경험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여성 각자의 자살행위 선택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소개되는 네 명의 자살 사례들은 연구자가 자살행위와 연관된 농촌 여성의 다양한 감정 경험 및 개인적 맥락을 보여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별한 것으로,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대표할 수는 없다.

1) 하방(下放)노동자 ‘수’의 분노와 억울함

2004년 처음 만났을 당시 서른여덟 살이었던 수와 남편은 원래 평릉현(風龍縣, 가평) 내의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으나, 1990년대 초 정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의 전국적인 고용인원 감축 정책 속에서 하방(下放: 실직) 노동자 신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개혁정책만 아니었더라면 ‘철

밥통(鐵飯鍋: 평생직업)이었을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유기업의 노동자에게 공급되었던 집과 사회보장 혜택들도 모두 반납해야 했다. 물가가 높은 현 내에서의 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던 수와 남편은 딸과 이들을 데리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농촌 생활도 쉽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행정등록 상 도시호구¹⁴⁾에 속해 있어서 마을로 내려가도 경작 및 거주를 위한 토지를 분배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길거리에 나왔게 된 수와 가족을 붙잡히 여긴 수의 삼촌이 분배받은 땅 약간을 나눠주었다. 그 결과, 수의 가족은 이웃집의 삼분의 일도 채 되지 않는 한 칸짜리 작은 집에서 겨우 살고 있었다.

수와 남편은 하방 이후 곧 다른 공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아무도 그들을 받아 주지 않았다. 더욱이 수의 이런저런 병치레로 인해 약값 비용은 늘어만 가고, 이들은 얼마 안 있어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병들고 몸이 힘든 수는 빚까지 늘어나자 남편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독촉했으나, 남편이라고 해서 딱히 무슨 용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점점 감정 다툼이 심해졌다. 1995년 수와 남편은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심산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근처 해안 도시에서 단기간 계약직 일용 잡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지치고 병든 수에게 막일은 무리였다. 어느 하루, 수는 너무나 피곤하여 일을 나가지 않기로 하고, 남편 혼자라도 나가서 일하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도 피곤하다며 일을 나가지 않았고, 수는 화도 나고 더 이상 희

망이 없다는 생각에 근처 바닷가에 몸을 던졌다. 다행히 수는 당시 지나가는 사람의 구조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여전히 크게 변함없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연구자가 만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여전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종종 경험하고 있었다.

수의 자살 시도 사례는 단순히 그녀만의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보다는, 개혁 정부의 갑작스러운 노동 구조 개편으로 인해 다수의 하방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전반적인 구조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자살 시도는 언뜻 보기에 마치 엄청난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농민의 시위 속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자살처럼, “인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중국 정부를 향해 외치는 저항적 행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설령 구조적 현실이 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든 원천적 배경이라고 하더라도, 수가 그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의 맥락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는—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효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대규모 실직 노동자를 양산해 낸 국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는 커닝 경멸을 일삼는 주변 이웃과 친척들에게 분노와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거꾸로 이웃 사람들은 수와 남편을 국가 정책의 희생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방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다 저렇게 살지는 않는다”면서 두 사람의 계움을 닮았다.

참으로, 하방 이후 지속적으로 수를 힘들게 하고 “죽고 싶도록 만든” 이유는 국가보다는 수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웃 사람들에게 있었다. 다음은 어느 날 문득 연구자에게 내뱉은 수의 고백이다.¹⁵⁾

14) 중국의 가구등록 체제의 기원은 왕조 시대로까지 올라가지만, 현대의 형태는 1958년 중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을 통제하고 도농 간 차별적인 권리와 복지 체제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설립되었다. 현재 중국의 가구등록 체제에 따르면, 각 가구는 도시 혹은 농촌 가구로 범주화되며,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가구 성원들의 사회 보장 및 자원 배분의 권리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도시 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혜를 받고 더 나은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이지만, 수와 남편의 경우에는 장애로 나타나고 있었다. 수와 남편은 둘 다 도시 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집과 경작을 위한 토지를 분배받을 수가 없었다.

15) 본문의 사례 속에서 인용된 자살 시도자의 이야기는 사실상 중국어에서는 크게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연구자와의 관계 성격에 따라 존댓말 혹은 반말로 번역하였다. 예컨대 수는 연구자와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단단은 연구자보다 나이가 많고 원래 누구든지 팔팔하게 대하는

그저께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야, 사실 난 화가 너무나 나 있었어. 게다가 남편은 날 달래 주기는커녕 비판을 해대고, 내가 화가 너무 나서 막 울었 다니까. 정말 농약을 먹고 콧 죽고 싶더라고 이웃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가난하다고 미워해. 난 자식들한테 집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해. 괜히 길거리에서 놀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와서 확 밀치고 간다니까. 내가 또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다른 집에 절대로 가지도 말라고 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깔보니까 말이지. ... 우리 애들은 심지어 자기 이모네 집도 안 가.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우리는 가난하니까, 절대로 부잣집에는 가지도 마라. 부자들은 널 깔볼 뿐이다. 가난한 집에도 가지 마라. 가난한 집 사람들은 너희들이 괜히 뭐가 흠쳐간다고 생각한다. 난 매일 자식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그저 집에만 있으라고 해. 산다는 게 도 대체 왜 이렇게 고된 건지.

수는 한때 도시 노동자로 잘 살았던 자신 및 가족들이 직장을 잃고 마우로 내려온 이후에 겪어야 했던 친척과 이웃 사람들로 부터 받는 달라진 대우 — 즉, 멸시와 차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특히 수를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게 만든 것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의 아이들이 무언가 흠쳐간다고 가까운 이웃들이 의심하는 일이었다. 또, 수가 부조금을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 잔치 때면 와서 많이 먹고 간다고 친척들은 수를 군거리고 불평을 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로 수는 여러 번 싸웠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자식들은 차별과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싸우지 말라고 수를 말렸고, 수는 그러한 자식들이 도리어 불쌍해서 더 화가 났다. 결국 수가 겪어 온 마을 내에서의 일상생활 및 감정적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수의 자살이 실직과 경제적인 곤란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함부로 오해되고 남들

성격이어서 반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반면, 랑은 나이가 어려서인지 워낙 예의바르고 조심하게 말하였고, 안징은 자살예방프로그램에서 맨 처음 만났기 때문인지 연구자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언어는 존댓말로 번역하였다.

로부터 쉽게 무시당하는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오는 분노와 억울한 감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수의 자살 시도를 개혁 시기 중국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자살'로 범주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분명히 수의 자살 시도는 개혁 시기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 개혁 과정 속에서 대안적 활로를 찾을 수 없었던 수는 일상적인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결국 자살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에 노출되어 온 사람의 자살행위를 무조건 '저항'이라고 본다면 지나치게 심한 일반화이다. 적어도 '저항'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인식과 반대 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가 경험해 온 최근의 삶의 과정들과 주변관계를 살펴본다면, 수를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돈이 없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척과 이웃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주관적인 경험이었다. 이웃과 친척들의 '차별과 무시, 억측 주장과 비난'은 농촌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들을 만나야만 하는 수에게 반복되는 심리적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결국에는 수를 깊은 우울과 분노 속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수의 우울은 신체화 증상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수는 여러 해에 걸쳐 갖가지 종류의 약을 먹고 있었으며, 약값으로 인한 빚은 다시금 심리적 부담이 되었다.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수의 친척과 이웃들은 — 예전에는 도움과 동정을 표현했는지언정 — 2000년도 중반에는 실제로 수에 대해서 경멸과 무관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수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좋은 배경(도시 노동자 출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게으른 존재"일 뿐이었다. 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농사일이나 다른 허드렛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수는 이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았다.

심지어 수의 자살 시도는 동정이나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있으면서도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추어졌다. 결국 수의 자살 시도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삶의 궤적이 다른 자신과 가족의 삶을 공동체 내에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좌절감과 분노 속에서 선택된 마지막 탈출구라고 할 수 있다.

2) 남편과 시가족의 학대에 맞서온 '단단'의 자존심과 저항

2006년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마흔 한 살인 단단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자살 시도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전혀 꺼리지 않았다. 심지어 단단은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지 한 번 보라면서, 갑자기 바지를 풀어 내리더니 오른쪽 허벅지에 나 있는 10센티가 넘는 기다란 칼자국을 보여 주었다. 약 15년 전 사건 당시, 단단은 첫째에 이어 둘째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았으니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워낙 권위적이고 폭발적인 성격을 가진 남편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어린 자식을 둘이나 떼어놓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생각을 하느냐며 그다지 멀지도 않은 친정 방문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아들을 둘이나 낳아 왔는데도" 친정을 한 번 못 가게 하는 남편에게 화가 난 단단은 화감에 겨우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둘째 아들을 구들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너희 집 여자들[시아머니와 시누이]은 이 마을에 집이 있지만, 난 여기에 내가 쉴 집이 없다"¹⁶⁾라고 바락 소리를 질렀다. 단단의 불순종적이고 폭발적인 태도에 화가 난—특히, 어미 된 사람이 어린 자식을 내던졌다는 점에서 분노의 명분을 얻은—남편은 바로 부엌으로

16) 단단의 시누이들은 마을 내혼에 의해 혼인하여 친정 방문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반면, 단단은 다른 마을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시가족의 허락 없이는 친정 방문이 쉽지 않았다.

달려가 식칼을 들고 와서 단단의 허벅지를 찍었다.

단단은 이웃 사람들에게 '가정폭력'¹⁷⁾으로 인해 자살(시도)했다¹⁸⁾ 여자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웃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혼인 후부터 아이들 클 때까지 단단과 남편은 쉴 틈 없이 매일같이 싸웠고 그 싸움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거친 폭력으로 이어졌다. 단단도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았지만, 당연히 힘이 더 센 남편이 단단에게 가하는 폭력이 훨씬 더 거세고 그만큼 피해도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같은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시가족들은 단단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의 편을 들었다. 이처럼 남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곧장 폭력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을 지지해 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조차 없었던 단단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남편과 시가족들을 '원수'(仇人)라고 생각했으며 살고 싶은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 다음은 본인의 자살 시도 당시를 회상하는

17) '가정폭력'(家庭暴力)이라는 단어는 2000년대에 들어서 서구 담론에 영향을 받은 매스컴 보도와 마을 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마을에 도입되었다. 특히 여성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부부 간 신체적 구타와 거친 언어 사용은 '그다지 문제될 것 없는 행위'에서 어떠한 감정적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점차 그 의미가 변화해 가고 있었다.

18) 적어도 연구자가 거주한 중국 지역에서 '자살'(自殺)과 '자살 시도'(自殺未遂)는 일상적 언어 사용에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서구에서 '(committed) suicide'와 'attempted suicide'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말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서구인에게는 자살행위의 '결과'—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중요한 반면, 중국인에게는 자신의 몸을 해친다는 '행위 자체'가 더 주목받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심사위원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국어 자체의 특징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중국어 중에서도 광둥어의 경우에는 "-을 시도해 보다" 혹은 "-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에 해당하는 "試過"라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으며 이를 통해 행동과 시도를 명확히 구분한다. 반면 연구자가 거주한 지역의 방언과 같이 표준어와 가까운 중국어에서는 "試圖"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 회화 수준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살했다"(自殺了) 혹은 "자살한 적이 있다"(自殺過了)라는 표현은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목숨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자살해서 사망한 경우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은 "-는 자살해서 죽었다"(自殺死了)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단단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매일같이 맞고 사는] 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 물론 이혼도 생각했지. 사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얼마나 내 몸이 상할 수 있는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저 남편하고 살고 싶지가 않았어. 우리는 서로 맞지가 않았어. 시가족들은 내가 자기들과 같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도 어디 그런가? 난 다른 가족에 속한 사람일 뿐이야. 그나마 시누이하고 시어머지는 괜찮은 편인데, 시어머니하고 큰아주버님은 날 아주 못살게 구는 거야.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나 큰아주버님한테 뭔가 나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만 들었다 하면 그날은 날 때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남편한테 굴복할 것 같아? 난 시집을 때 기름 한 방울까지도 친정에서 가져왔단 말이야. 절대 남편한테 굴복 못하지... 그래서 남편을 떠나기 위해서 자살을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농약을 마셨지. 그런데 농약을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자식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 우리 셋째 시누이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떠났거든. 난 항상 그 애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¹⁹⁾

19) 단지 중국 농촌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겠지만, 연구자가 머문 지역에서 '엄마 없이 자라는 불쌍한 아이'의 수사와 경험적 이미지는 농촌 여성들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쉽게 떠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된다. 단단의 경우에서처럼,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자식에 대한 미안함 내지 안타까움이 주된 감정적 요소로 나타난다. 육아가 전적으로 엄마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고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부재한 농촌 사회에서,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실제로 엄청난 외로움과 물질적 부족 및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는 이 문제를 오로지 "아이를 버린" 엄마를 질책·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생물학적 엄마가 없이 자라 온 사람의 정신적 외상은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월하는 듯이 보인다. 일찍이 모친을 잃고 계모나 다른 친척 밑에서 자라야 했으며 남편과 시가족들에게도 학대를 받고 있었던 한 30대 여성은 "난 자살도 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하곤 했다. 그녀에 따르면, "적어도 자살을 시도하는 여성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한만큼은 최소한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자기처럼 엄마도 내버린 자식은 피로워도 피로워할 수가 없고 누가 흘대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단단의 사례는 가족 내 반복되는 억압의 구조와 이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결과적으로 농촌 여성이 '마지막 저항 내지 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단단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즉, 거의 매일같이 시가족이 만들어 내는 나쁜 소문과 언제나 시가족에게 호의적인 남편의 태도 그리고 잇따른 남편의 구타가 있다. 결혼이 야기한 불행과 납득하기 힘든 심리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단단은 더 이상 삶을 지속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남편을 떠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다른 대안으로 이혼을 고려했지만, 단단은 실제로 이혼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단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결혼 초기에 이혼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당시의 복잡한 이혼 절차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놓여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법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체 조직인 대대(大隊)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일 남편이나 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대의 간부들이 쉽게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락을 기다리고 씨름하는 와중에 여자는 이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단단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 가지 억압적인 가족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복 못하는" 그녀의 저항적 주체성이다. 시집 올 때 "기름 한 방울까지" 가져온 단단은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는 남편과 시가족에게 고분고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남편과 시가족의 '가족' 담론을 단단은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가족처럼 대해 주지 않는다면, 이미 가족이 아닌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단단의 당당하고 저항적인 태도를 가족 내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느꼈을 남편과 시가족은 더 더욱 "버릇을 고치기 위해" 단단에 대한 억압의 강도를 높였을 수 있다.

지면상의 제한으로 단단의 자살 시도 이후의 삶에 대해 자세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남편의 칼부림 및 자살사건은 급기야 친정 가족에게 알려지고 이들의 항의 방문을 동반하였다. 방문한 친정 가족은 단단을 이혼시키겠다고 강력히 선언하였는데, 이전에 단단이 혼자 이혼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건이 크고 단단의 피해가 논쟁의 여지없이 명백했을 뿐 아니라 친정 가족을 대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단의 이혼은 실제로 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사실 상 어린 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폭력으로 이미 소문난 단단의 남편이 재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시가족들은 어떻게든 단단의 이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급기야는 마을 간부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결국 마을 간부들의 중재와 설득 속에서, 단단의 남편 및 시가족이 앞으로는 그녀를 잘 대하겠다고 글로써 맹세하는 조건으로 단단과 친정 가족은 이혼 결정을 취하였다. 단단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남편과 시가족들은 그녀를 “조금”(一點) 낮게 대해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연구자가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시가족의 간섭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단단과 남편은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예전만큼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적지 않은 폭력이 오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단단의 자살 시도는 여러 가지 그녀가 겪어온 삶의 맥락과 과정을 고려할 때, 남편과 시가족의 억압과 학대에 대한 농촌 여성의 저항적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단단의 사례에서처럼 농촌 여성에게 있어 자살행위는 억압의 주체와 내용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라면 자신이 불합리하게 겪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폭로 및 비난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론의 지지 속에서 억압 주체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항의 수단으로서의 자살이 갖는 위험 부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살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거나 죽지는 않더라도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어야 하며, 이러한 위험에 비해 항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3) 사랑에 목숨을 건 ‘량’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절망감

2006년 당시 서른 세 살인 량이 과거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량과 남편은 마을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서로 아끼고 위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 사람은 항상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평안한 삶은 혼인 과정의 난관과 결혼 후에도 여러 해 동안 두 사람이 겪어야 했던 숱한 고생 이후에나 가능한 결과였다.

량은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구혼하는 남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연애결혼을 꿈꾸어 왔던 량은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고아이자 매우 가난한 현재의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했다. 량의 부모는 그녀의 생각을 어떻게든 바꿔 보려고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을 끊는 등 업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자기 뜻대로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다.

혼인 이후, 량과 남편은 량의 부모가 요구했던 고액의 신부대²⁰⁾를 갚기 위해 바로 타지에서 돈벌이에 나섰다. 사실 신부대는 결혼하기 전 신랑의 가족이나 신랑이 마련하는 돈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원칙적으로 신부가 갚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량은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갓 낳은 아기를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외지에 나가 돈을 벌러 오자고 제안했다. 외지에서 두 사람이 한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고도 고통스러운 노동 작업이었다. 그중 한 가지는 닭 도살장에서의 일로,

20) 뻘이 딸과 사위의 처지를 아는 부모가 많은 액수의 신부대(중국 위안화로 만 삼천 원, 한화로 현재 기준 약 이백만 원)를 요구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량의 부모 입장에서 당시 시기에 따른 신부대를 예비 사위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신부대는 의도와 상관없이 딸이 혼전 성관계 경험이나 선천적 지병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 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7~8미터 직경의 닭 피가 가득 고여 있는 웅덩이 안에 들어가 체로 하루에 약 200개의 들통에 이르는 고기 덩이를 핏물 가운데서 건져 내야 했다. 비록 매일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젖도록 힘들었지만, 부부는 “빛이 점점 줄어드는 즐거움에 고생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신부대로 인한 빛을 다 갚고 약간의 현금을 손에 쥐었을 때, 랑의 다리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오더니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약값과 병원비로 인해 두 사람은 다시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다.

랑이 약 1년 간 누워 있는 동안 그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의 극심한 자괴감이었다. 남편은 랑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이러한 고통을 겪을 이유도 없다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심지어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랑을 이전처럼 잘 대해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편이 빛을 줄여 보고자 시작했던 사업이 망하고 말았다. 결국 반복되는 악재 속에서 남편은 분노와 짜증을 가까이 있는 랑에게 냉소적으로 퍼붓기 시작했다. 이러한 남편의 모습은 랑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그녀는 남편이 변심하여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급기야 남편도 고열에 시달리더니 앓아눕게 되었다.

남편과 제가 모두 병에 걸려 버렸죠 남편은 고열에 시달리는데, 그 열이 도통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약을 써도 안 내려가요 한 삼사 개월 동안 그랬어요 저는 여전히 걸을 수가 없었죠 아직 허벅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말로서는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로지 친정 부모님만 가끔 들러서 돈을 주고 가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점차 남편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고, 제 허벅지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그 당시 우리는 어떤 사업도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남편이 하기만 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잃기만 했죠 그때 정말 운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일할 의지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하루는 제가 왜 일하러 가지 않느냐면서 우리는 아직 살 일이 많지 않느냐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도리어 제 말에 화가 나서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남편의 그 태도를 보니, 정말 더 이상 살

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찬장 안에 있던 쥐약을 꺼내서는 유리컵에 담고 술과 섞었어요 술을 넣어야 웬지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한 모금에 그냥 꿀꺽 마셨어요.

랑의 자살 결심 및 행동은 오로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한 혼인이 자신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허무한 결과를 낳게 되는 상황에 대한 절망 속에서 선택한 해결책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반복되는 악재를 경험하면서, 남편이 랑에 대해 더 이상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버리고 짜증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세로 돌변하게 되자, 오로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친정 부모와도 절연하고(나중에는 회복되었지만) 고생을 감당해 왔던 랑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랑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농촌 여성들과는 달리 삶의 우선적 의미를 자식 양육보다는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에 두고 있었다. 이처럼 부부 간의 사랑을 최우선시하는 랑이 가진 주체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자살 선택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대개 결혼한 부부보다는 혼전 연인 사이에 나타나긴 하지만, 사랑하던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충격 속에 목숨을 끊는 행위는 중국의 남녀에게서 간혹 발견되는 현상이다.

사실, 현대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개인의 감정은 종종 사회 구조나 경제 변화, 혹은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 속에서 종종 간과되어 왔다(반면, Jankowiak 1993; Farrer 2002; Yan 2002, 2003을 참조). 개인의 감정이 논의되더라도 자애(慈愛)나 우정(友誼)과 같은 잔잔하고 은근한 요소들이 주목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에서의 자살행위는 중국인들에게 결코 열정적인 사랑과 같은 강렬하고도 치열한 감정이 부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거부당하거나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자살은 자신의 절망과 배신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선택되기도 한다. 랑의 경우에, 다행히 남편이 술에 탄 쥐약을 마신 랑을 곧

바로 발견하고 병원에 옮겨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남편은 랑의 자살 시도를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했다. 사건이 2000년도에 발생했으니 연구자가 만났을 때는 이미 여러 해가 지난 뒤였는데도, 랑의 남편은 여전히 혹시라도 그 당시 랑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두려운 상상에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꺼렸다.

사랑의 실패 혹은 연인의 배신으로 인한 절망의 표현으로서의 자살행위는 단지 현재 중국 농촌 사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오히려 시대적·지역적으로 보편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거주한 지역의 경우, 사실상 부부관계가 랑과 남편처럼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극적인 삶의 과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랑의 자살 시도와 같은 사례를 자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10대 내지 20대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연인과 헤어진 다음 “너무 절망적이어서 죽고 싶다”(太絕望, 想死)는 표현을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텔레비전의 도입과 더불어, 텔레비전 연속극의 영향으로 남녀 간의 극적인 연애 및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틀을 뛰어넘는 열정적인 관계에 대한 젊은이들의 수용 내지 선망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40~50대 주민의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의 실패로 인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자살에 대한 고려는 비단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만 경험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가끔 마을 주민들이 놀리듯이 “지금쯤 누구의 아버지인 이 사람이 사실 젊었을 때 마을의 누구를 좋아해서 심지어 자살 소동을 벌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말이다.

4)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안징’의 절망과 죄책감

자살자의 80% 이상이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낮다(Phillips, Li,

and Zhang 2002). 그러나 농촌지역에도 드물긴 하지만 주변 상황의 개선과 상관없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임상적 우울증 환자가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들의 자살 시도는 종종 자신이 ‘정신병 환자’라는 정체성 자체에 대한 절망 내지 죄책감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2004년도 연구자가 사십 대 초반의 안징을 처음 만났을 때, 안징은 이미 이 년째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지난 일 년 동안은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었다. 안징 스스로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우울증은 2002년 북경으로 몇 년간 계약직 잡부로 일하러 갔던 남편이 폐병에 걸려 돌아오면서, 남편의 치료를 위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다 써버리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얻게”(突然 得)되었다고 한다. 계약직 이주 노동자였던 남편은 북경에서 일하는 동안 중국 정책 상 도시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돌아온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만 치료가 가능했다. 모택동 시기 ‘뱀발의 사’(赤脚醫生)의 활약으로 농촌 곳곳의 위생과 보건 문제를 경이롭게 해결해 왔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당시에는 농촌지역에는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보조도 없었다.

안징은 정신과의사가 아닌 연구자가 보기에 너무나 확연할 정도로 불면증, 만성피로, 의욕상실, 식욕부진과 같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인에 의하면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계속되는 불면증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로 인해 “다른 여자들처럼” 밭일과 집안일, 자식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약을 양약이나 중약 할 것 없이 다 먹어 봤지만, 빛만 늘어날 뿐 장기적으로 효험이 나타나는 약은 없었다. 안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소진하였다.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기 시작하자, 주변 가족들은 안징의 자살 가능성을 고려해 집안에 있는 모든 위험한 물건들—예컨대, 칼, 밧줄, 농약—을 치웠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죽음을 생각해 온 안징은 어느 날 여동생의 집에서 여동생이 잠시 나간 틈을

타서 그 집에 있던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도 바로 그 순간에 우연히 방문한 이웃에 의해 안징은 바로 병원에 실려 갔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안징의 자살 재시도를 염려한 가족들은 결국 근처 도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그녀를 입원시켰으며, 그 이후로 안징은 정신과 의사의 관리 속에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우울증 환자인 안징의 관점에서, 도대체 왜 그녀는 자살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울증 환자의 자살 시도는 이미 의학분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겠지만, 중국 농촌의 맥락 속에서 우울증 환자의 자살 시도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의미를 띠고 나타난다. 다음 제시되는 첫 번째 인용문은 자살을 시도했을 당시의 감정에 대한 안징의 고백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인용문은 자살 시도 이후,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안징이 느끼는 고통과 죄책감을 드러낸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밤낮없이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남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일 뿐이니깐요 과연 이런 삶이 그래도 의미가 있을까요? ...여동생네 집에 약 스무 날 머무르는 동안 디디웨이(이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농약의 상표명)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한 번에 들이켰어요.

결국 죽고 싶은 마음은 이 병[우울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내 안에 영원할 거예요. 이 병이 없는데도 독약을 먹고 죽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 [우울증에 걸리기 전에는] 약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착하고, 또 싸우지 않거든요. 예전엔 경제적 상황이 지금같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 만한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가족들이 엄청난 돈을 써야 되게 된 거죠. 이 병은 다른 지역에 차를 타고 가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또 약을 계속 먹어야만 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걸요. 그 약값이 한

달에 무려 오백 위안(한화 약 팔만 오천 원)이에요. 만일 오백 위안을 다달이 내지 않으면 계속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전 지금 똥똥하잖아요. 이게 다 제가 먹는 약 때문이에요. 원래 저는 엄청 말랐지만 일을 아주 잘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어쩌면 저렇게 일을 잘 하나고 칭찬하곤 했지요. 들에서나 집에서나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양의 농사일을 혼자 척척 해내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돈이 많이 들고 빚까지 지게 하는 약을 매일 먹어야만 하는 거죠. ...이 약은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약하고 달라요. 일 년이 넘게 먹고 있는데, 아직도 먹어야 된대요. 사람들이 빨리 질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넌 바보(傻子)지? 엄청나게 약을 먹어대니 똥똥하기도 해라. 그런데, 그렇게 똥똥한데도 왜 일은 못하는 거야?”

안징의 이야기로부터, 그녀가 현재 느끼는 고통 및 자살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그녀가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증상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병 치료 비로 가족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결과적으로 —인용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자식이 고등학교를 못 갈 형편이 되는 상황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중국 농촌의 가구에서, 여성의 질병 치료는 아들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한, 가족의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대개 최후의 고려 대상이다. 특히 경제 개혁 이후, 더 이상 질병 치료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여성의 질병은 가족 및 공동체의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안징은 자신의 우울증 치료에 가족의 많은 희생과 돈이 쓰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불편하게 느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처럼 가족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한편, 우울증 약을 먹어도 낫기는커녕 계속 농사일과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징은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

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발병하기 전에는 일을 잘 한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신망을 얻었던 그녀는 누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던지는 비난과 경멸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있었다. 건강을 위해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난한 농민들에게 사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온 가족이 적지 않은 여행비용을 들여 도시에 있는 병원까지 안장을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어도, 그녀는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살만 피동피동 찢지언정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일 뿐이다. 최근 몇 년을 제외한 이십 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각종 노력과 봉사를 한 안장이지만, 오랜 질병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부정적인 감정 경험—'무용성에 대한 자각' 및 죄책감은 중국 농촌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가 노동력 및 아들 출산의 능력, 두 가지 실용적 능력에 의해 기본적으로 평가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안장의 자살 시도는 그녀가 겪고 있는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에 덧붙여 농촌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일 잘하는 육체노동자이자 동시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나온 실존적 결단이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안장은 "무용하고 가족에게 짐만 지우는" 자신을 '해결'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가족들에게 바람직한 아내이자 엄마로서 역할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사례에서와 달리, 안장의 자살은 단지 감정에 의거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우울증 환자에게 이와 같은 단어가 부적합하다고 서구 의학자들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결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중국 농촌 여성들은 최근 농촌 사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정치 경제적 상황 및 사회 문화적 구조들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개혁 시기 중국 농촌 여성의 높은 자살률에 관심을 가져 온 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시장개혁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궁극적으로 농촌 여성의 빈번한 자살을 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인의 결단을 수반하는 자살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시적인 환경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이 자살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심리적 내지 문화적 동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여러 사회과학적 연구 중에서 문화적 동기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두 편의 논문—특히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을 이들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바라보는 두 논문을 검토하였다.

이 두 편의 논문은 중국 여성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짚어내고, 나아가 중국 사회에서 자살이 저항의 의미를 띠어왔다는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사회의 자살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연구자는 각각 제임스 스콧과 미셸 푸코의 저항 개념에 기대고 있는 두 논문이 '저항'이라는 형태적 유사성에 집중한 나머지, 사실상 중국인들이 '저항으로서 자살'을 고려할 때 이해하고 있는 '저항'의 개념과 이들이 적용하고자 시도하는 서구적 '저항' 개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연구자는 실제로 농촌 여성들이 자살행위를 선택하기까지의 구체적 삶의 맥락과 과정을 고려한다면, 농촌 여성의 자살을 단순히 '저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며 민족지적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후 연구자는 현지조사로부터 얻은 자료 중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왜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가 '저항'이라는 한 가지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가를 보여 주고자 시도했다. 네 명의 사례들은 제한적 자료로서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를 결코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례들은 농촌 여성의 자살행위가 단순히 한 가지의 동기와 의미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다양한 감정적 경험 및 주체성 그리고 삶의 경로와 맥락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례에 나타난 농촌 여성들은 각각 실직, 가정 폭력, 실연, 장기간의 질병 경험과 같은 서로 다르고 특수한 맥락 속에서 자살을 해결방법으로 시도했으며, 자살행위와 연관된 감정 경험에 있어서도 억울함, 분노, 배신감, 죄책감, 절망감 등, 개인이 처한 독특한 맥락과 삶의 과정, 그리고 개별적 주체성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중국 농촌 여성에 대한 자살 연구에서 이들 여성이 사회계층으로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살행위가 갖는 개별적 특성 상, 개인들의 주체적 경험들과 이들 경험이 중국인들의 문화적 가치들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참고문헌

- 김광억, 1991, "저항문화와 무속의례," 『한국문화인류학』 23(1): 131-172.
- , 2000, 『혁명과 개혁 속의 중국 농민』, 서울: 집문당.
- 한지아령, 2002, "중국 여성 발전상에서의 국가의 역할," 한국여성연구원 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서울: 푸른사상, pp.79-109.
- 孫隆基(박병석 역), 1997, 『중국문화의 심층구조』, 서울: 교문사.
- 신은영, 2003, "한국과 중국의 농업정책과 여성의 지위," 『평화연구』 11(1): 115-145.
- 양영균, 2001, "언은 자와 잃은 자: 개혁, 개방 시대 중국의 한 농촌 마을의 사례," 『비교 문화연구』 7(1): 29-64.
- 울프, 마저리(문옥표 역), 1991, 『현대중국의 여성』, 서울: 한울.
- 이현정, 2010, "자살에 관한 문화적 학습 및 재생산의 경로: 중국 농촌 여성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6(2): 115-149.
- 장경섭, 1995, "개혁사회주의의 성편향성 —개혁기 중국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여성학논집』 12: 289-315.
- 전성홍, 1997, "중국의 개혁과 농민: 농업의 사영화, 농촌의 공업화, 그리고 농민의 계층 분화," 『신아세아』 4(1): 113-141.
- 조수성, 1997, "90년대 중국 여성의 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20: 21-40.
- 최지영, 2006, "개혁개방 이후 탈농업화 속의 중국 농촌 여성 문제에 대한 젠더적 고찰," 『현대중국연구』 8(1): 7-41.
- 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 2007, 『河北經濟年鑒』, 中國統計出版社.
- Abu-Lughod, Lila, 1990, "The Romance of Resistance: Tracing Transformations of Power Through Bedouin Women," *American Ethnologist* 17(1): 41-55.
- Brown, Michael F., 1996, "On Resisting Resistance," *American Anthropologist* 98(4): 729-749.
- Durkheim, Emile, 1951[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 Farrer, James, 2002, *Opening Up: Youth Sex Culture and Market Reform in Shangha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ucault, Michel,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Vol 1, New York: Vintage.

- He, Zhao Xiong and David Lester, 1997, "The Gender Difference in Chinese Suicide Rat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3: 81-89.
- Hollander, Jocelyn A. and Rachel L. Einwohner, 2004, "Conceptualizing Resistance," *Sociological Forum* 19(4): 533-554.
- Jacka, Tamara, 1997, *Women's Work in Rural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kowiak, William, 1993, *Sex, Death, and Hierarchy in a Chinese City: An Anthropological Accou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Ji, Jianlin, Arthur Kleinman and Anne E. Becker, 2001, "Suicide in Contemporary China: A Review of China's Distinctive Suicide Demographics in Their Sociocultural Context,"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9(1): 1-12.
- Lee, Hyeon Jung, 2009, "States of Suffering: Female Suicide, Subjectivity, and State Power in Rural North China," Ph.D. Dissertation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Lee, Sing and Arthur Kleinman, 2000, "Suicide as Resistance in Chinese Society," in Elizabeth J. Perry and Mark Selden (eds.), *Chinese Society: Change, Conflict and Resistance*, New York: Routledge, pp.221-240.
- Lin, Yuän-huei, 1990, "The Weight of Mt. Tai: Patterns of Suicide in Traditional Chinese History and Culture," Ph.D. Dissertation in the Department of Chinese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iu, Meng, 2002, "Rebellion and Revenge: The Meaning of Suicide of Women in Rural China,"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11: 300-309.
- Murray, C. J. L. and A. D. Lopez, 1996, "Global Health Statistic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Ortner, Sherry, 1995, "Resistance and the Problem of Ethnographic Refusal,"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7(1): 173-193.
- _____, 2006, *Anthropology and Social Theory: Culture, Power, and the Acting Subjec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earson, Veronica and Meng Liu, 2002, "Ling's Death: The Experience of Psychiatric Service Consumers in Chin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2(1): 45-55.
- Phillips, Michael R., Huaqing Liu and Yanping Zhang, 1999, "Suicide and Social Change in China,"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23: 25-50.
- Phillips, Michael R., Xianyun Li and Yanping Zhang, 2002, "Suicide Rates in China, 1995-99," *The Lancet* 359: 835-840.
- Pritchard, C., 1996, "Suici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tegorized by Age and Gender: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Culture on Suicid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3: 362-367.
- Qin, Ping and Preben Bo Mortensen, 2001,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China,"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3: 117-121.
- Said, Edward 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 Scott, James C, 1989,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The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4: 33-62.
- Shin, Eun-young, 2001, "The Effect of the Chinese Reform Policy on the Status of Rural Wome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7(3): 63-92.
- Sivaramakrishnan, K., 2005, "Some Intellectual Genealogies for the Concept of Everyday Resistance," *American Anthropologist* 107(3): 346-355.
- Spivak, Gayatri,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Macmillan.
- Wardlow, Holly, 2006, *Wayward Women: Sexuality and Agency in a New Guinea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soky, Sharon, 2005, "Voices out of Time: Dual Resistance in Discourses on Women's Suicide in Rural China," Presentation Paper at the 2005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hicago, Illinois, March 31-April 3, 2005.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9, *The World Health Report 1999*,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lf, Margery, 1975, "Women and Suicide in China," Margery Wolf and Roxane Witke (eds.), *Women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Wu, Fei, 2005, "Elegy for Luck: Suicide in a County of North China," Ph.D. Dissertation i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at Harvard University.
- Yan, Yunxiang, 2002, "Courtship, Love, and Premarital Sex in a North China Village," *The China Journal* 48: 29-53.

_____. 2003, *Private Life under Socialism: Love, Intimacy, and Family Change in a Chinese Village, 1949-199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Yip, Paul S. F., Ka Y. Liu, Jianping Hu and X. M. Song, 2005, "Suicide Rates in China during a Decade of Rapid Social Chang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y Epidemiology* 40: 792-798.

■ 자료

BBC, 2007. 6. 4일자.

New York Times, 1999. 1. 24일자.

Abstract

〈key words〉: suicide, resistance, subjectivity, ethnography, rural China

Is Suicide among Rural Women in China

a Form of Resistance? :

A Critical Review of Western Discourses about Resistance
and the Anthropological Analysis of Suicidal Behavior
in Rural North China

Lee, Hyeon Jung*

Over the past decades, high rates and uniquely gender-related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China, such as a suicide epidemic among rural women, have attracted much scholarly and public attention. The suicide phenomenon in China has been studied either from psychiatric or sociological perspectives, and researchers in social sciences have suggested that the high incidence of female suicides in rural areas is closely related to negative influences of the government's market reforms since the 1980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recent articles on suicide in China which draw respectively on James Scott's and Michel Foucault's concepts of resistance and interpret female suicide in rural areas as resistance against women's painful life conditions under market reforms. The two studi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obstacles faced by rural women, the obstacles which have possibly influenced some women's suicidal behavior. However, by overly emphasizing the resistant character which a female suicide victim might have had, these studies fail to address the concrete contexts of individual lives and the different

투고일자 : 2010. 5. 10 심사일자 : 2010. 8. 8 게재확정일자 : 2010. 8. 13

* Research Professor,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life processes by which rural women have chosen suicide as an ultimate solution to their different problems. I also contend that by relying on the Western conceptions of resistance, the discussions overlook different norms and beliefs about human relations predominant among the Chinese, which have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by which rural women have attempted or committed suicide.

Findings in my own ethnographic study in northern Chinese villages are counterposed to those in the articles. Based on my research, I argue that female suicidal behavior in rural China, in fact, is not necessarily motivated by a resistant character, but rather reveals diverse emotional experiences and subjective meanings within the specific contexts in which each woman was situated before her suicide attempt. Four cases of female suicidal behavior in this paper demonstrate that rural women in China have tried self-killing in the context of different painful situations, including a job layoff, a quarrel between spouses, domestic violence, poverty, and a state of clinical depression. Their suicidal behaviors have also involved different emotional experiences, such as feelings of injustice, guilty feelings, feelings of betrayal, anger or despair. Based on my ethnographic data, I argue that to interpret female suicide in rural China as an act of resistance is over-generalization and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living realities of suicidal behavior among Chinese rural women.